



# 농수산물 수출 Zoom In 66호

- I 국산 신선 농산물,  
미국·대만 등 본격 수출 개시
- II 수출 식물 검역 규제 완화
- III 「한국산 배 수출확대전략 포럼」 개최
- IV 「복숭아 수출활성화 방안 세미나」 개최



#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66호 2019. 9. 27(금)

‘19.8.31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.1% 증가한 63.1억\$

## 부류별

신선	가공	수산
  <b>9.0%</b> 870백만불	  <b>0.8%</b> 3,751백만불	  <b>5.5%</b> 1,686백만불
+ 인삼류, 김치, 닭고기 - 파프리카, 배, 유자차	+ 음료, 라면, 커피조제품 - 켈런, 맥주, 설탕	+ 고등어, 김, 굴 - 참치, 넙치, 전복

## 국가별

\* 쌀 무상원조 실적('18(20.0백만불), '19(2.0)) 제외

\*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

 <b>중국</b> 1,060백만불(10.8%) ▶ T-moll 연계 한국 종합 식품 온라인 판촉(~10.30)	 김(53%), 라면(13%)  유자차(△21%), 맥주(△7%)
 <b>미국</b> 750백만불(8.4%) ▶ 대형마트 연계 양파, 마늘 등 채소류 판촉(~10.20) ▶ 온라인몰 연계 삼계탕 등 판촉(~11.21)	 김(13%), 음료(12%)  인삼류(△24%), 비스킷(△10%)
 <b>일본</b> 1,437백만불(2.2%) ▶ 대형마트 연계 한국 종합 식품 판촉(~11.15)	 켈런(6%), 김(5%)  참치(△17%), 파프리카(△2%)
 <b>ASEAN</b> 1,203백만불(2.0%) ▶ 베트남 Bic-C 연계 음료류 판촉(~10.27)	 닭고기(80%), 라면(6%)  김(△30%), 음료(△4%)
 굴(27%), 김치(14%)  설탕(△12%), 딸기(△3%)  새송이버섯(7%), 음료(5%)  참치(△14%), 채소종자(△10%)	<b>홍콩</b> 277백만불(△3.2%) 
	<b>EU</b> 371백만불(△7.6%) 

☆  : 15%이상 /  : 5~15% /  : 0~5% /  : 0~△5% /  : △5~△15% /  : △15%이하

## 품목별 이슈

\* 실적 : '18. 1. 1 ~ 8. 31



### - 팽이버섯

◇ 전년도 여름 폭염 대비 신선한 날씨로 샵샵브용 수요 증가

13,734천불(3.2%)

▶ 주요 수출국 : 미국(5,595천불, 2.3% ↑), 호주(2,275, 1.2), 캐나다(1,478, 15.7), 네덜란드(1,161, 25.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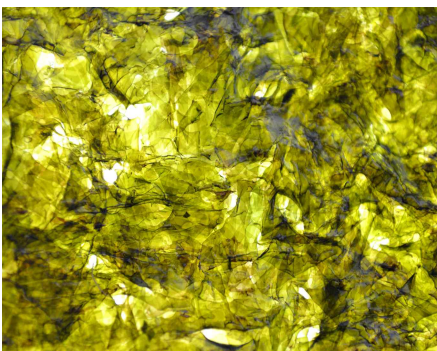
### - 포도

◇ 거봉·캠벨·사이머스켓 포도의 전년도 대비 작황 호조로 인한 수출 큰 폭 상승



4,949천불(25.7%)

▶ 주요 수출국 : 베트남(1,577천불, 22.0% ↑), 홍콩(1,344, 43.0), 싱가포르(559, △20.2%), 말레이시아(274, 23.2)



### - 김

◇ 일본의 오봉절 특수, 중국의 김 작황 악화로 수요 증가

32,520천불(52.1%)

▶ 주요 수출국 : 나이지리아(14,079천불, 3,032.3% ↑), 가나(4,245, 155.6), 필리핀(3,078, 835.2), 태국(2,473, △7.7)

☆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(www.kati.net) >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☆ <농수산물 수출 Zoom In>은 월 1회 발행됩니다 (문의처 : aT 수출기획부 061-931-0816)

## 식물검역 이슈



### 국산 신선 농산물, 미국·대만 등 본격 수출 개시

검역본부는 8월 8일 조생종 배의 미국·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2020년 6월말 딸기·토마토의 베트남 수출까지, 전국 66개 시·군 264개 등록 선과장에서 수출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.

올해 수출 검역 계획량은 총 37,748톤으로 작년 수출량대비 67% 증가한 물량이다. 최근에는 중남미 신규 시장 개척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. 특히 최근에 수출 협상이 타결된 중남미 시장 중 브라질('17)로는 136톤, 아르헨티나('18)로는 100톤의 배가 수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### 수출식물검역 규제 완화

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수출업체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개선된 사항들을 반영하는 「수출식물의 검역요령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출용 종자 시료 채취기준 완화, 신선 농산물 실험실 정밀검역을 수출 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및 서류검사만으로도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 목록 확대(6품목 추가) 등이다. 추가로 차량 및 기계류에 대해서도 수출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출검역요령이 추가되어 10월 중 개정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수출식물 검역요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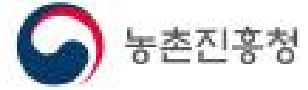
### 대미 포도 수출 단지 농정 현장 방문



농림축산검역본부는 '19.8.30(금) 충북 영동에 소재하고 있고 미국 포도 수출단지인 황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. 특히, 이날은 황간농협 주관 영동 포도를 미국으로 첫 수출하는 1차 선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.

- ☆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(www.qia.go.kr) >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- ☆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. (문의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-912-0623)

## 농진청 이슈



### 「한국산 배 수출확대전략 포럼」 개최

8월 26일 농촌진흥청은 한국산 배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천안배원에농협에서 “배 수출확대전략 포럼”을 개최하였다. 배 수출농가, 수출업체, 농식품 수출경영체협의회 회원, 농촌진흥기관(도원,시군센터) 관계관 등 50여명이 포럼에 참석하였으며, 한국산 배 수출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.

- ▶ 천안배원에농협 심훈기 상무(배 수출진단과 미래의 청사진),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김경상 지도사(울산지역 수출전문단지 재편사례), 군위군 황금배수출영농조합법인 윤점환 대표(황금배 수출성과와 과제)

토론은 수출용 배 농약안전사용지침 적기보급, 수출배농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추진과 신제품 생산기술 및 수출 물류 기간 고려한 저장기술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.

현장 의견으로는 우리배 해외 홍보가 미국 LA 중심에서 유럽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과 농약안전사용지침 개정시 농협 및 수출단지 안전성 관리 담당 직원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.



### 「복숭아 수출활성화 방안 세미나」 개최

8월 30일 농촌진흥청은 산·학·연 전문가 4명을 초청하여 복숭아 수출 확대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토의를 공무원·농업인 등 79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.

- ▶ 영남대학교 윤해근 교수(복숭아 수출단지 현황 및 수출확대 방안), 경북통상 김병우 차장(복숭아 수출시장 현황 및 수출확대 방안), 농림축산검역본부 변봉용 사무관(수출국가별 검역병해충 및 관리요령),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성중 연구관(수출용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)

수출용 복숭아의 재배법 개선 및 품질 기준 설정(당도 13Brix, 착색 80% 이상)과 수출 국가(대만, 베트남) 등에 따른 맞춤형 품종 육성 등 복숭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.

토의내용으로 수출통합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출 농가의 권익 강화와 복숭아 품질이 지역·농가 간 차이가 있으므로 품질 기준 설정과 선별을 통해 고품질 복숭아 수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.



☆ 농진청 이슈 문의처 :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(063-238-0674)